

초·중·고 86%가 석면학교…교체는 지지부진

광주 231곳·전남 808곳 교실·화장실에 석면 의심물질
예산 한정·수업 진행돼 지연…“방학중 일괄 진행 시급”

광주·전남 초·중·고교 10곳 중 8곳 이상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건축자재가 사용됐음에도 교체사업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학교가 오히려 석면으로 뒤덮인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교 1204개교 중 1039개교(86.30%)의 교실·화장실 등에 석면 의심물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10개교 중 8.6개교가 석면에 고스

란히 노출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석면 의심물질은 전문가들이 석면이 함유됐다고 인정한 물질로 직접 성분 검사를 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의 석면자재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는 646개교 중 87.15%인 563개교가 석면 의심학교로 나타났다. 이어 고등학교 86.60%(209개교 중 181개교), 중학교 84.53%(349개교 중 295개교) 등의 순이었다. 석면의 경우 호흡기 침투를 통해 10년~4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인 점을 감안하면 초·중·고 학생 때부터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특히 광주보다 전남지역 학교의 석면자재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309개교 중 74.76%인 231개교가, 전남은 895개교 중 90.28%인 808개교가 석면자재 사용학교로 분류됐다.
석면의심물질은 주로 ‘텍스’로 불리는 천장 마감재 또는 화장실 등 칸막이 내부 구성물, 바닥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시교육청 등은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전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조사를 한 뒤 높음·중간·낮음 단계로 분류, 높음단계를 받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있다.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은 지난해 92억·93억 원의 예산을 투입, 144개교에 대한 석면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석면교체 작업이 더딘 이유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다, 교체 공사 땀 학교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생이 하루 일과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면교체 공사 땀 방학 중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실 등을 위주로 일괄적으로 시행, 석면학교 비율을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석면교체 공사 예산은 물론 석면교체 면적도 늘려가고 있다”면서 “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해체·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소원이 이루어져라~” 양성평등 주간(1일~7일)인 3일 광주시 북구청 로비에서 열린 ‘양성평등 행복나무 꾸미기’ 행사에 참가한 광주 중흥어린이집 원생과 직원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행복나무’에 소망 카드를 붙이고 있다.

어린이 종이염 방지하면 평생 고생

환자 2명중 1명 9세 이하…고막 천공·난청 등 만성질환 가능성

여름철 물놀이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 하는 종이염 환자 10명 중 5명이 9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릴 때 종이염을 방치하면 평생 만성질환에 시달릴 수 있는데다, 고막천공이나 난청이 생길수도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건강보험공단만의 진료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이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15만8000명이었다. 이 중 9세 이하 소아·아동은 116만5000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54.0%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9세 이하 인구는 454만3000명으로 이 중 4분의 1 이상이 종이염 진료를 한 번 이상 받은 셈이다. 세부적으로 2세가 21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세 21만명, 3세 18만4000명, 4세 13만8000명 순이었다.

9세 이하에서 유독 환자가 많은 이유는 어른보다 면역력이 약하고 귀 구조상 감염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소아의 귀 내부 구조는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넓고 좁은 데다 수평에 가까운 모양이어서 상기도 감염군이 중이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환자 중에서 10대 비중은 8.8%였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환자 비율이 4.7~7.6% 사이였다. 남녀간 차이는 크게 없었다.
종이염은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의

기능장애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종이염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고막 천공, 고실 경화, 난청 등이 생길 수 있다. 드물지만 급성 유양돌기염, 안면신경마비, 화농성 미로염, 뇌농양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김원영 우리들내과 원장은 “종이염은 고막과 내이(달팽이관)사이 중이강에 생기는 염증으로, 특이 어린시절 발생한 종이염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성인이 돼서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면서 “특히 소아 일수록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해질 19:51

날출 15:30
날짐 01:59

후텁지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 30~80mm.

◇지역별 날씨 (℃)

광주	24/29	보성	가름	22/27	
목포	비온뒤	24/28	순천	가름	24/30
여수	가름	23/28	영광	비온뒤	24/28
나주	가름	23/28	진도	비온뒤	24/28
완도	비온뒤	24/29	전주	가름	24/29
구례	가름	22/29	군산	비온뒤	23/28
강진	비온뒤	24/29	남원	가름	23/29
해남	비온뒤	24/29	홍산도	가름	21/25
장성	가름	23/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1.0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동해 앞바다	남~남서 1.5~2.5	남~남서 1.5~2.5
남해 앞바다(서)	남동~남 1.5~2.5	남동~남 1.5~2.5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57	10:23
	16:11	23:28
여수	11:43	05:26
	—:—	18:41

◇주간 날씨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24/31	24/30	24/30	24/31	24/31	24/31	24/32

광주 주택 임대차 분쟁, 소송 대신 조정

법률공단 조정위 개소…손배 다툼 비용·시간 절약

광주에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이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서동빌딩 3층(지산로 85)에서 광주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을 갖는다. 공식업무는 3일부터 시작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할 경력 있는 사람이 반드시 위원에 포함된다.
조정위원회는 주택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

택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을 둘러싼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돕는다. 임대차 계약 내용 해석과 이행, 임대차 계약과 종료에 대한 분쟁과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다툼 등도 조정 대상이다.
주택임대차 분쟁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작성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광주지부에 제출하거나 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직원에게 분쟁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문의는 062-710-3430.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경찰청 월말까지 총기류 일제점검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3월 31일까지 불법 개·변조된 총기의 범죄 악용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소지하가면 모든 총기류로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마취총, 타정총 등 총 9872정이며, 점검 방법은 총기소지자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자합물(총기 등 점검대상물, 소지

허가증, 신분증)을 휴대하고 직접 방문해 점검을 받으면 된다.
전남청은 다만 노약자와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남청은 또 모든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장기 미사용 총기에 대해서는 자진 폐기를 유도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차단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정을 펼치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신지식농업인 광주·전남지회 회원일동